

대자연의 멋에 흠뻑 취해 잠드는 몽골여행

글. 심영우 KFN 국군방송 기술감독, 승종희 여행가



몽골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주변에서 몽골여행에 대해 들을 때마다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광활한 대지와 초원, 자유롭게 뛰노는 동물, 쏟아질 듯한 별에 대한 이야기는 설렘으로 다가온다. 유럽, 동남아 여행에서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곳. 몽골은 전 세계를 호령하며 대제국을 꿈꾸었던 칭기즈 칸의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초자연적 신비함을 간직한 곳이다. 여행의 적기는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8월로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소나기가 내려 초원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몽골에서 도시를 벗어나 노마드를 꿈꾸며 8박 9일 몽골 고비사막으로 떠난다. 고비사막에서 가볼 만한 곳과 여행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정을 들여다보자.



바가 가즈링 출루(Baga Gazriin Chuluu)에서 만난 몽골의 초원



테를지 국립공원 승마 트레킹



국립공원의 거북바위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가까운 테를지 국립공원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몽골인들의 휴가,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이다. 넓게 펼쳐진 초원을 배경 삼아 자리를 한 몽골의 이동식 가옥인 게르와 말을 돌보는 목동의 여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몽골인은 수천 년 동안 말을 타고 국토 전역을 누볐다. 작지만 단단한 몸집에 성격이 거친 몽골말도 잘 길들여 어렵지 않게 승마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거북바위는 여행자에게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물감을 칠해 놓은 듯한 차강 소브라가(Tsagaan Suvraga)

붉은 기암절벽이 있는 차강 소브라가는 고생대에 바닷속 지층이 용기·풍화돼 생성된 절벽으로 고생대 시기의 바다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고비의 바람이 짝아

낸 예술 작품 같은 절벽은 몽골 내내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불타는 절벽 바양작(Bayanzag)

바양작은 불타는 절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몰 때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미국의 앤드루스 탐험대가 공룡의 화석과 알을 발견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기념품을 파는 가판을 지나 입구로 들어서면 ‘혹시나 공룡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아슬아슬한 절벽 위를 걷게 된다.

한 시간 동안 트레킹을 즐기고, 붉은 절벽에 앉아 넓게 펼쳐진 초원의 비현실적인 모습에 넋을 잃는다. 마치 아시아의 그랜드 캐니언에 온 듯하다. 차강 소브라가는 규모는 작지만, 괴이한 모양의 절벽과 색감이 강렬한 반면, 바양작은 넓고 웅장하지만 황량한 느낌이 드는 곳이기도 하다.



차강 소브라가



바양작 붉은 절벽에 걸터앉아 대지를 바라본다

한여름에 얼음 트레킹을 맛보다 울링암(Yolyn Am)

독수리와 비슷한 새인 ‘올’이 사는 계곡이라는 의미의 울링암은 여름에도 녹지 않은 얼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다만,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한여름에는 얼음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 울링암은 말을 타고 둘러보거나,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거대한 절벽 사이에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진다. 이곳에서는 ‘올’과 ‘우는 토끼’라는 귀여운 귀처럼 생긴 동물과 산염소 3가지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 작고 귀여운 우는 토끼는 울링암 계곡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었다.

내심 ‘올’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하늘을 쳐다본다. “저거 ‘올’ 아닌가?” 보는 새마다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지만, “올은 매보다 몇 배는 더 커요!” 가이드 ‘벌게’의 말은 내심 실망감을 안겨준다.



울링암 협곡 사이 얼음이 녹지 않아 얼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었다

고비의 꽃 ‘홍고린 엘스’ 사막탐험

거대한 모래 언덕 홍고린 엘스는 고비사막의 백미로 꼽힌다. 모래 속으로 발이 푹푹 들어가서 한 걸음 나아가면 세 걸음 뒤로 미끄러지기에 가도 가도 끝이 없다. 두 발로 걷다 네발로 걷다를 반복하며 힘겹게 오른다.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오니 온몸이 모래투성이다. 사구 정상까지는 대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사막의 경이로운 풍경은 올라올 동안 힘들었던 수고를 충분히 보상해준다. 정상에서 샌딩 보드를 타면 1분이 채



샌딩 보드를 타면 순식간에 내려온다



고비사막에 파묻혀 노마드를 꿈꿔본다.

걸리지 않아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 샌딩 보드는 고비사막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내 집만큼 편안했던 게르 생활

게르는 나무로 된 뼈대와 기둥에 양털 천막을 씌운 형태의 집으로 유목민 전통 가옥이다. 추위와 바람을 피할 수 있고,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다. 하나의 공간이지만 침실, 접대실, 주방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여행자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편안한 게르 캠프에서 지내기에 진정한 유목 체험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게르 캠프는 여행자들이 쉽게 머물 수 있게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숙박 임대업과도 비슷하다. 게르 내부는 대부분 상태가 비슷하

지만,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등 편의 시설이 천차만별이며, 사막에 설치된 게르 캠프에서도 마치 리조트에 버금가는 시설을 만날 수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승 전 양고기

몽골 음식은 양고기를 주로 먹는다. 일주일 내내 기름진 양고기 음식을 먹다 보면 물리기까지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몽골 마트에서 파는 케첩을 준비하면 유용하다. 보즈(Buuz, 찐만두)와 호쇼르(Khuushuur, 튀김만두), 초이왕(Tsuivan, 양고기와 채소를 넣어 만든 볶음국수), 반시태술(Banshtai shul, 양고기가 들어간 국수)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음식 맛은 기름지고 짭조름하



몽골 유목민 전통 가옥인 게르, 게르 캠프를 통해 체험이 가능했다



몽골 전통 보양식 허르크헝(Khorkhog)



달만 없다면, 매일매일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다.

다. 냄비에 양고기와 물, 돌을 함께 넣어 오랜 시간 찌낸 허르헝(Khorkhog) 또한 몽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다. 허르헝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 맛이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였으나, 이 또한 기름이 많기에 탄산음료나 보드카는 필수이다.

몽골인들은 소금을 넣은 몽골식 밀크티 수태차(Suuteitsai)를 자주 마시는데 지역마다, 식당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다. 잠시지만 수태차에 빠져 끼니마다 수태차를 즐겼는데, 달고 짭 맛이 자꾸 마시고 싶게 만드는 묘약 같았다. 암말의 젖으로 만든 발효주 마유주(airag,

아이락)도 빠질 수 없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인 7월부터 맛볼 수 있는데, 여러 상점을 돌아다닌 끝에 마유주를 6월에도 맛볼 수 있었다. 맛이 시큼한 막걸리와 비슷하며, 알코올 도수는 3% 정도이다. 몽골인들은 술이 세니 괜한 경쟁심에 과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자. 마유주는 우리나라의 막걸리처럼 발효주라 다음날 숙취에 시달릴 수 있다.

별이 뚝뚝! 로맨틱한 몽골의 밤

세계 3대 별 관측지 몽골에서 매일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감상할 수 있는데, 몽골 초원에 누워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로맨틱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10시간 넘게 가야 하는 북유럽에서 만끽할 수 있는 별천지를 몽골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밤하늘 가득 뒤덮는 은하수의 향연은 많은 여행자의 가슴에 불을 붙인다. 몽골의 여름 일몰은 약 밤 9시 경인데, 광해가 없기에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몰려오고, 이내 긴 띠를 그리며 올라오는 은하수를 만날 수 있다. 게르에 누워 별을 이불 삼아 우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이 순간 몽골 여행은 더 이상 Tour, Trip, Travel이 아닌 voyage가 될 것이다.

몽골로 떠난 '몽골'팀의 여행

몽골은 자유여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행지 간의 거리가 너무 멀고, 제대로 포장된 길이 없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렌트한다고 한들 여행자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그렇기에 몽골여행은 대부분 투어나 패키지를 이용한다. 자유여행을 선호한다면, 4~12명까지 개별 팀을 만들어 몽골 현지 투어를 한다. 필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6명의 팀원과 함께 투어를 시작했다. 티격태격 이런 것이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몽골여행은 새로움, 설렘, 뜻밖의 즐거움을 만들어주었다. 우리를 안내했던 현지인 가이드 빌게(Ganbileg) 와 운전사 푸지(fuujee)는 편안한 여행길을 안내해주었다. 특히나 빌게는 한국에 오래 거주한 터라 여행 내내 농담까지 주고받을 수 있어 심심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푸르공을 타고 끝없는 초원을 만난다

푸르공은 구소련식 미니버스로 고비의 풍경과 잘 어울려서 낭만적인 여행을 선물해준다. 몽골 여행지 간의 거

리가 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 시간은 푸르공을 타며 보내기 일쑤이다. 빠른 속도로 비포장 된 초원을 달리기 에 여행용 목베개는 필수이다. 푸르공의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평이 있으나, 어떠한 차든 몽골의 초원을 달린다면 승차감이 좋을 수는 없는 법.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푸르공과 매일을 지나다 보면 이 또한 편안한 승차감으로 다가온다.

푸르공을 타고 드넓은 고비의 초원을 달리다 보면,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것은 몽골의 5대 가축이라는 방목된 양과 염소, 말, 소, 낙타뿐이다. 푸르공의 경적소리에 내달리는 양과 염소의 뒤통무늬가 한없이 귀엽기만 하다.

몽골에서 느낀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다가올 때쯤, 여행이 끝났다. 아무 생각 없이 푸르공에 몸을 맡긴 게 잊고 제 같은데 9일이라는 시간이 금세 흘렀다. 마치 우주여행을 다녀온 듯 머릿속은 텅텅 비었고, 마음은 공허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모두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보드카 덕에 '몰골'이라는 팀명이 뜻밖에도 완성되었다. 보드카와 함께라면 N이 L로 변신하는 마법이 일어난다

멀고 가혹한 땅을 여행하는 일이 두렵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드넓고 푸른 초원, 끝없는 지평선, 거대한 사구와 얼음으로 뒤덮인 협곡, 공룡화석, 자유롭게 뛰노는 양과 염소, 밤하늘을 물들이는 은하수를 만날 수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하지 않은가? 이제는 몽골 여행자들이 외치는 몽골 앞이를 알 것 같다. ☞

없는 길도 만들어 내달리는 푸르공

“광활한 대지와 초원, 자유롭게 뛰노는 동물, 쏟아질 듯한 별에 대한 이야기는 설렘으로 다가온다. 몽골은 유럽, 동남아 여행에서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초자연적 신비함을 간직한 곳이다.”

